



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2년 6월 12일

**CUOMO** 주지사, **DFS** 조치가 주택보험 과잉 청구에서 일부 뉴욕주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 백만 달러를 절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

*DFS 조사 결과, 보험회사들이 강제 보험에 대해 과잉 청구해 왔음이 드러남*

*DFS는 보험회사들이 뉴욕주 주택 소유자를 위한 새 요율을 제출하도록 명령*

Andrew M. Cuomo 지사는 금융서비스부(DFS)가 뉴욕의 강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새 보험료 요율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. 이는 보험회사들이 뉴욕주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 백만 달러까지 과잉 청구해 왔음이 밝혀진 후에 나온 것입니다. 제안서는 2012년 7월 6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.

은행 또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들은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조건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 주택 소유자 부동산에 강제 보험을 부과합니다. 강제 보험의 요율은 일반 주택 소유자 보험 비용의 3배에서 많게는 10배일 수 있지만 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작은 보호를 제공합니다.

필요한 보험료 요율보다 더 높다는 증거가 최근의 DFS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. 또한, DFS는 강제 보험 시장에 보험료를 낮게 유지할 종류의 경쟁이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. 뉴욕주의 경우, 두 회사가 이 시장의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청문회에서는 높은 강제 보험 비용이 주택 소유자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은행과 보험 회사들은 보험료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.

“가족들은 더 작은 보호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보험의 추가 비용은 가족을 압류 절벽으로 밀 수 있습니다”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러한 청문회는 요율이 너무 높을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이 이유 때문에 DFS는 보험회사들이 새 요율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새 요율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. 요율이 공정하게 매겨져서 주택 소유자들이 공정한 요율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.”

금융서비스부 국장 Benjamin M.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우리의 청문회는 경쟁 결여, 높은 가격 및 낮은 손실율을 시사하는 데 이 모두가 주택 소유자들을 해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청문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근거할 때 이제는 보험회사가 새 요율을 그러한 새 요율의 사유와 함께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”

Korean

압류 위기의 결과로 강제 보험 시장의 규모가 2004년의 15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55억 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.

본 명령서는 American Security Insurance Company (Assurant), QBE Insurance Corporation 및 American Modern Home Insurance Company에 발송되었습니다. 이 보험회사들은 뉴욕주 강제 보험 시장의 90%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미국 전체적으로도 주요 보험회사들입니다.

###

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